

선진 농업 '익산형 스마트팜' 추진

시, 스마트팜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개최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선진 농업 구축을 위한 '익산형 스마트팜' 정책을 추진하는 등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시는 25일 금마면에 위치한 감초유통사업단에서 농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전략 품목으로 전환하고 청년농업인 및 귀농인을 이끌기 위한 '익산형 스마트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정현율 익산시장, 정명채 명예농업시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민수 박사, 감초유통사업단 김태준 대표,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이용범 석좌교수, 한국정밀농업연구소 남재자 대표, 청년·귀농 스마트팜 시설 농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농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추세, 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의

국내외 상황에서 익산의 농업생산 체계와 구조 변화를 인식하고 기존 수도작 중심의 농업에서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생산구조로 개선하는 의견을 내었다. 전문가들은 청년농업인 및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작물을 생산해 익산형 스마트팜을 육성하고 이를 토대로 선진 농업을 이끌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청년·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마트팜',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을 연계한 스마트팜', '농업인 가치(지위) 상승의 스마트팜', '효율적 투자를 통한 경제적 스마트팜' 등 다양하고 현실적인 의견들이 눈길을 끌었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수도작 중심에서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원



정현율 익산시장이 25일 금마면 감초유통사업단을 방문했다.

예·특작 분야 농업으로의 점진적 전환을 통한 농업 성장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과 귀농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익산만의 주도적 스마트팜 정책을 추진해 농가 소득을 증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민이 장애인 행정 원스톱 서비스 구축에 역량을 집중했다.

군산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시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리 보호, 사회참여 지원 등 장애인 행정 원스톱 서비스 구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25일 군산월명체육관에서 '포용으로 꽃피는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군산시의 후원, 시)군산시장애인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가족, 시민 등 1,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올레기타밴드의 공연으로 시작해 1부 기념식과 2부 문화향유 마당으로 진행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한

민간인과 공무원 28명에 대한 표창과 장애인복지 실현으로 사회통합에 공이 많은 공로자에게 감사패를,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10명에게는 장학금을 전달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가 군산시 17,870여 명장애인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 각종 시책과 제도로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복지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의 날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택시 기본요금 5월부터 3300원으로 인상

군산시는 오는 5월 1일 0시부터 2013년 이후 6년 만에 택시 요금을 14.47%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인건비 및 물가상승 등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으로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결정된 사항으로, 전라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전라북도 택시요금율 요율 조정 통보에 따라 이뤄졌다.

군산시 택시 요금은 기본요금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운임 148m당 100원에서 137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 35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고남철 교통행정과장은 "택시업계의 경영상황 및 근로자 처우 개선, 잦은 민원해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 한 것"이라며 "요금 체계 변경과 인상을 계기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량정결 유지, 과

속, 난폭운전 및 법규를 준수하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택시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역에는 법인택시 528대, 개인택시 935대 등 총 1,463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며, 택시 품질 서비스 개선을 위해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택시운수종사자 친절 서비스 교육을 진행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원광미래혁신위원회 출범

원광대학교가 대학 구성원 참여 및 주도로 대내외 위기 극복과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였다.

숙의형 대학경영 실현을 위한 '원광미래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24일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발전계획 및 재정, 학생 및 교육, 연구 및 산학협력, 행정 및 시설환경, 입시 및 국제화 등 5개 분과로 구성했다.

원광미래혁신위원회는 구성원 참여를 유도했다.

본부 기관장을 제외한 일반 교수와 법인 팀장, 행정부서 과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대학 경영을 극복하기 위한 대학운영 상황 진단 및 미래 발전전략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맹수 총장은 "여러 사람이 지혜를 모아 아이디어를 내고,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거둔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익산시,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평가 최고등급 획득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SA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결과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110여일 간 전문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226개 시군구청장의 공약실천계획 자료에 대해 분석한

1차 평가와 지적 사항에 대한 지자체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SA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발장려금(시제품개발비), 각종 매체 홍보, 카탈로그 게재, 홍보 리플릿 제작 등이 지원된다.

이번에 선정된 (주)헤리노브는 본사를 서울에서 익산으로 이전한 업체로 2014년 (주)아이디엔제이(익산) 법인을 설립을 기점으로 익산시에 제조 및 개발 관련 설비를 투자하기 시작했다. (주)헤리노브는 2015년 반지 및 기타

합산 총점이 80점을 넘어 최고등급인 SA를 받았다.

지난해 11월~12월에는 40명의 시민배심원을 구성해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수립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조정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공약평가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공약추진 단계별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익산=장인천 기자

헤리노브, 귀금속보석 우수제조업체 인증서 받아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25일 귀금속보석 우수제조업체로 선정된 (주)헤리노브(대표 정지필)에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개발장려금(시제품개발비), 각종 매체 홍보, 카탈로그 게재, 홍보 리플릿 제작 등이 지원된다.

이번에 선정된 (주)헤리노브는 본사를 서울에서 익산으로 이전한 업체로 2014년 (주)아이디엔제이(익산) 법인을 설립을 기점으로 익산시에 제조 및 개발 관련 설비를 투자하기 시작했다. (주)헤리노브는 2015년 반지 및 기타

주얼리 실용신안 출원 및 HERI NOV(헤리노브) 상표등록, 2016년 지식경제부 지원 스마트 워치 밴드 교환용 주얼리(웨어러블주얼리) 개발 참여, 2017년 여성가족부 주관 여성친화기업 선정, 2018년 한국 데이터베이스 주관 기술 개발 우수 기업에 선정되었으며 HERINOV 온라인 쇼핑몰(http://www.herinov.com)을 운영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철웅 부시장은 "익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후 제조시설 투자 및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해 익산 귀금속보석



발전에 도움을 주신 (주)헤리노브 정지필 대표에게 감사패를 드린다"며 "시에서도 보석도시 명성에 걸맞게 앞으로 우수제조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본죽 본사모, 사랑의 죽 전달

본죽 본사모는 25일 익산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죽 전달식을 가졌다. 본사모는 본죽 가맹점주들로 이뤄진 협의회로 이날 1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쇠고기야채죽과 반찬 200그릇을 직접 조리해 포장했다.

박동운 본사모 회장은 "부모님이 드신다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죽을 준비했으며 맛있는 드실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말했다.

본사모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매년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쇠고기 야채죽 200그릇을 기부하는 '사랑죽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전달식 외에도 2017년에는 익산시 저소득가구를 위해 죽 상품권 50매(40만 원 상당)를 기부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풍당보리축제 현장서 간부회의 개최

군산시는 25일 미성동 국제문화마을 보리밭 일원에서 현장 간부회의를 열고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는 제14회 군산풍당보리축제 준비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강임준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등 30여명은 이날 회의에서 풍당보리축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주행사장 일대를 돌아보며 축제가 성

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지를 다졌다.

강임준 시장은 "연휴기간을 맞아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축제를 즐기고 멋진 추억을 담아가실 수 있도록 주관 부서를 중심으로 전 부서가 협조해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